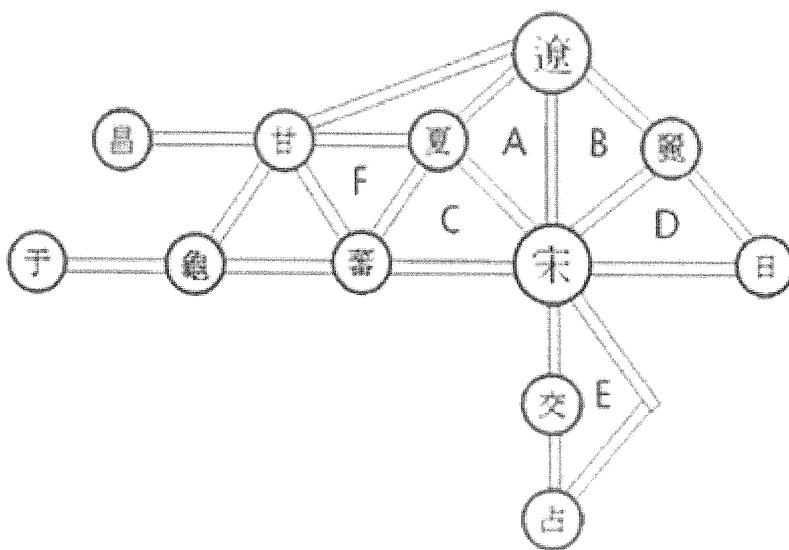


김성규, “3개의 ‘트라이앵글’: 북송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세와 그 특징에 관한 시론”, 『역사학보』 제205집, 2010.3.

- o 북송시대(960–1127) 동아시아 국제관계 개괄
 - 종전의 唐 중심의 질서가 송과 요로 대표되는 이원적 국제관계로 재편된 상황.
 - A(송–요–서하), B(송–요–고려), C(송–서하–토번), D(송–고려–일본), E(송–交趾<베트남>)-占城, F(서하–토번–위굴)의 다양한 삼각관계의 병존 (그림 참조)
 -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림〉 북송시대 동~북~중앙아시아 각국 간에 보이는 다양한 삼각관계들(김성규 案)



○ 속에 보이는 문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略語이다. 특히 '麗'는 고려, '日'은 일본, '交'는 交趾, '占'은 占城, '夏'는 西夏, '蕃'은 吐蕃, '甘'은 甘州, '龜'은 龜茲, '昌'은 高昌, '于'는 于闐을 각각 의미한다.

I. 북송시대 ‘전기’의 국제관계

- O 송–요간 및 동북아 국제관계가 매우 불안정함
 - 송–요는 北漢을 사이에 두고 대립함. 북한이라는 완충세력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 형성.
 - 송 태종이 북한 병합, 전국 통일(979)함으로써 냉전기로 급전환

- O 송이 주변 세력과 동맹관계 타진
 - 高昌 위굴에 사신 파견(981), 발해 유민이 세운 定安國과 접촉 시도
 - 송의 사신 韓國華가 고려를 방문 군사동맹을 요구함(985).
 - ↔ 이에 요는 송의 동맹상대를 군사적으로 응징함. 여진 토벌이 정안국 토벌과 관련됨.